1. 윌리엄 캐리의 아내 도로시는?
What about Dorothy?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고전9:5) 라고 변론했다. 이 구절을 볼 때 몇몇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문화가 다른 사역지에 그들의 배우자와 함께 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실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결혼한 부부가 함께 타문화권에 가서 섬긴 이야기를 찾아보려면 근대 선교운동이 시작된 1700년대 이후부터나 가능하다. 지역적으로는 중동에서부터 수 천마일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화공의 아내 Wife of a Shoemaker

도로시는 1756년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 부모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나갔고, 그 교회에서 도로시는 마을 제화공 견습생이었던 윌리엄을 만났다. 당시에 많은 젊은 여자들처럼 도로시 역시 읽고 쓸 줄을 몰랐다. 그러나 윌리엄은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책을 많이 쓰는 자가 되었다. 이들이 1781년 6월 20일에 결혼할 때에는 영국이 미국의 13개 주와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로부터 2년 반 후에 제화점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윌리엄과 도로시는그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고, 이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해 보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났고, 같은 교회를 출석했고, 결혼하여 자신의 마을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 젊은 부부였다.

목사 사모 Wife of a Pastor

그러나 몇 년 후 마을 교회에서 윌리엄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변화되었다. 4년 후인 1785년에는 물톤(Moulton)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다시 4년이 지난 1789년에 윌리엄은 라이체스터(Leicester)로 이사가서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제화공으로 일했고, 2주 마다 일곱 번의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어떨 때에는 생계를 잇기조차도 힘들 정도였다. 이 때 그들은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 중 둘은 2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시기에 그들은 생계가 어려운 전형적인 목회자 가정이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윌리엄에게 생계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다른 나라의 믿지 않는 이들이었다. 1792년 윌리엄은 세계 다른 나라의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작은 팸플렛을 출판했다. 곧 윌리엄은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했고 그는 아내 도로시와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기를 원했다. 다음의 일들은 1793년에 일어난 일들이다.

- 1월09일: 윌리엄과 그의 친구 존은 선교단체의 첫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 1월16일: 그의 아내 도로시가 선교지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것을 알고 선교단체 대표 앤드류가 도로시를 만나 보았고, 면담 후에도 도로시는 여전히 거부하였다.
- 2월01일: 프랑스가 영국에 선전 포고를 했다.
- 3월17일: 윌리엄은 영국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다.
- 3월26일: 도로시, 윌리엄, 그들의 세 자녀(휄릭스, 윌리엄 주니어, 피터)는 서로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채 작별 인사를 하였다.

- 4월04일: 윌리엄, 존, 8살 휄릭스는 인도로 갈 호송대를 만나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전쟁으로 인해 예정보다 6주가 지연되어 화이트 섬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때 도로시는 살던 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 5월03일 경: 도로시는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름을(마음이 괴로운 중에 출산하였기에) 야베스(Jabez)라 하였다.
- 5월22일: 윌리엄은 인도로 갈 호송대를 기다리는 중에 덴마크 배가 인도로 곧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도로시가 같이 떠날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 5월24일: 윌리엄, 존, 휄릭스는 밤새 항해를 해서 아침 식사 때 도로시에게 당도하였고, 식사 중 도로시에게 같이 떠날 것을 간청하였으나, 여전히 도로시는 같이 가기를 거절하였다.
- 5월24일: 윌리엄이 선교비용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존이 다시 한번 같이 가서 도로시에게 부탁하자고 했으나 윌리엄은 그만두자고 했다. 존은 혼자라도 가서 말해보겠다고 하였고, 윌리엄은 그래도 되지만 아마 시간 낭비일거라고 했다.
- 5월24일: 존은 도로시를 만나서 "이번에 헤어지면 가족들이 영영 이별할 수 있으며, 이것은 평생 그녀가 회개할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도로시는 그럼 인도행에 동행하겠으나, 단 그녀의 자매가 동행하면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도로시와 윌리엄은 캐서린(Catharine)을 설득하고, 이삿짐을 꾸리고, 집안 소유물을 팔아 정리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마지막 떠나는 인사를 마쳤다.
- 5월25일: 3달 된 아들 야베스를 포함한 윌리엄 가족 전부는 도버(Dover)를 향해 떠나게 되었다!
- 5월30일: 선교단체 대표 앤드류는 후원금 모금 편지에 기록하기를 "행복하게도 윌리엄이 온 가족과 같이 떠나게 되었다… 아내와 생이별이라는 선교에 대한 걸림돌은 사라졌다…." 앤드류는 또 만일 윌리엄이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는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1억도 넘는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때 앤드류는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가족이 "헤어지는 것을 막아 주셨고, 앞으로의 그가 이룰 성과에 대한 시비거리를 미리 없애 주셨다"라고 결론 지었다. 존은 기뻐했고, 윌리엄도 행복했고, 앤드류, 선교단체, 후원자들 모두 만족했다. 그렇다면 과연 도로시는 어떠했을까?

선교사의 아내 Wife of A Missionary

그들 부부는 인도행 출항 시간에 늦을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출항시간이 2주 이상 더 지연되었다. 1793년 6월13일, 8세 미만인 네 명의 자녀(그 중 하나는 6주 밖에 안되었다)를 데리고 영국을 떠나게 되었다.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은 채 거의 4달이 지난 1793년 11월 11일에 인도에 도착하였다. 그 해가 다 가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이들 가족들은 두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 첫 번째로 콜카타 (Kolkata, 옛 명칭 '캘커타(Calutta)')에 살았는데 이 때에 도로시와 휄릭스는 이질에 걸리게 되었고 (약 1년간 지속됨), 그 다음으로는 포르투갈령인 반델(Bandel)에 머물게 되었다.

그 다음 해인 1794년은 이사,죽음, 스트레스로 가득한 한 해가 된다. 1월에는 윌리엄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문명화 된 매닉툴로(Manicktullo)에 머물게 되었다. 2월부터 4월에는 선더번즈(Sunderbunds)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그 전 해에 만에도 12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말라리아가 창궐한 미개한 지역이었다. 5월에 이들은 다음 거주 지역이 될 장소로 3주간 강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도로시의 자매인 캐서린이 선더번즈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그곳에 남게 되었다. 6월부터 7월에 이들은 말다(Malda)에서 살게 되었고, 윌리엄은 무드나바티(Mudnabatti)에서 사역을 하면서 먼 길을 통근하게 되었다. 8월에 전 가족이 윌리엄의 사역지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 다

섯살 난 피터가 그 곳에서 죽게 되었다. 다음은 그 후 12년 동안 윌리엄이 보낸 편지와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 1795년: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어제 도로시가 제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도로시는 그 편지에서 윌리엄이 바람을 피운다고 힐난했다.)
- 1796년: “낮이고 밤이고 윌리엄이 문을 나서면, 도로시는 따라와서 그가 하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토마스 부인과 관계 갖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매일 밤낮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심하게 말했습니다.”
- 1797년: “나를 살해하려는 미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녀 입에서 나오는 저질스럽고 충격적인 욕설을 듣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 1798년: “도로시는 상태가 처참해져서 거의 미친 정도이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입니다.”
- 1799년: “… 너무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하고… 전에 없던 황당한 일들이….”
- 1800년: “도로시는 아주 미쳤습니다.”
- 1801년: “도로시는 오늘 밤 전에 없이 가장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거의 혼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잠에 떨어질 정도로.”
- 1802년: “도로시는 완전히 미쳐서 날뛰고 있고 계속 가둬두어야만 합니다.”
- 1804년: “도로시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 1804년: “도로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 1805년: “도로시의 정신병은 더 심해졌고 계속적인 분노와 걱정이 가득차서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 1806년: “불쌍한 도로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 1807년: “불쌍한 내 아내는 정신병적인 우울증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베이커 출판사에서 출판된 제임스 벡의『도로시 캐리』(Dorothy Carey)를 보면 된다.

그러면 도로시는 어떠했단 말인가?

인도에서 그들은 자주 옮겨 다녔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유럽인들과는 거의 접촉이 없었다. 처음 7년 동안에 그들은 한 명의 인도인도 개종시키지 못했다. 단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 몇 명의 개종자가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종종 범람한 강이나 호랑이나 자칼 때문에 위험에 처하곤 했다. 이질, 말라리아, 기타 기생충 감염으로 자주 고생하였다. 실제로 몇 번은 자기들이 이번에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1807년 12월에 윌리엄이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 하나님께서 아내의 생명을 다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지난 12년 간 아내는 너무나 고통스런 세월을 지내야 했다….” 영국에서 제화공의 아내로 살 것을 기대했던 도로시는 인도에서 비참한 14년을 지낸 후, 51세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도로시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아내였다. 누구에게도 윌리엄 캐리의 결단, 헌신, 효율, 절제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대체 도로시는 어떠했단 말인가?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던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린 윌리엄의 결혼생활은 이후 선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윌리엄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그를 파송한 선교단체는 이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가 앞으로 선교사의 결혼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이 도로시 이야기는 거듭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때 관련된 이들이 배운 교훈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 시리즈의 결론을 써놓은 '샬롯테(Charlotte)에 관하여?' 라는 브로셔를 읽어보기를 바란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